

■ 광주 노래방 연쇄강도 '범죄심리 기법' 분석

“범인은 前 노래방 종사자” ‘학습효과’로 갈수록 대담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에서만 10번의 노래방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 경찰이 특진과 현상금 500만 원까지 내걸고 범인을 찾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 노래방 연쇄 강도사건'을 '프로파일링' (Profiling·범죄심리) 기법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 하셨습니다'를 붙이는 것으로 미루어 군이나 경찰 등 위계질서가 엄한 조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투"라며 "순찰시간 등 경찰의 행동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학교 표창원(41·범죄심리 전공) 교수는 "노래방에 가장 많은 돈이 모이고, 손님이 드문 새벽을 범행시간으로 잡은 것과 범행이 매우 치밀한 점으로 미뤄 구조와 영입에 대해 매우 잘 아는 과거 노래방 업주나 종업원의 소행일 수 있다"면서 "수사망이 좁혀 오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

▲프로파일링(Profiling)=범죄현장에 남은 증거와 범행 상황 등을 조사해 대략적인 범인의 범위를 좁혀 나가거나 범인을 찾아내는 과학수사기법. 범죄심리분석 기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전문가를 '프로파일러'라고 한다. 지난 1978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존 더글라스가 처음 범죄수사에 도입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배우 조디 포스터가 'FBI 프로파일러' 역할을 맡아 열연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우리 경찰은 지난 2000년께 프로파일링을 시작했으며, 현재 46명의 '프로파일러'가 활동 중이다.

혼자서 현장 사전 답사 가능성 추가 범행·모방범죄 우려도 커

하게 도주하는 점 등을 들어 사전 답사 후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차례의 범행을 통해 또 다른 범죄 방법을 배우는 '학습효과'로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료 12명과 함께 이번 사건을 '프로파일링'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범죄분석 담당 차운(42) 경사는 "수사과정이 범인에게 알려지지 않지 않기 때문에 뛰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범인이 학습효과를 통해 대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말끝에 '~수고하십니까' 혹은

고 동일 지역에서 연쇄범행을 하는 것은 범인이 상당히 대범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표 교수는 또 "범인의 현재 심리 상태는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하고, 주변의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행동이 다소 불안정할 것"이라며 "혼자서 범행 대상에 대한 사전답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손님 가운데 다소 불안해하거나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김재홍(34) 계장도 "담을 넘는 범인이 있는 범법자는 현판문이 열려있어도

담을 뛰어넘고, 배관을 타는 도둑은 1층인데도 배관을 타는 버릇이 있다"면서 "범인이 여러 차례의 범행을 통해 몸에 익숙해진 수법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며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웅(42) 경위도 "노래방 강도는 가로챈 돈이 소액이기 때문에 연쇄범행의 가능성이 있고, 모방범죄의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급식 종사자 손 대장균 검사 광주시 남구보건소·시 보건환경연구원·서부교육청 관계자들이 27일 광주 유안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 10여 명의 손 대장균 검사를 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오는 30일까지 광주 시내 초·중·고 12곳, 유치원·어린이집 2곳, 산업체 1곳 등에서 실시된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등생, 엄마 동거남에 맞아 숨져

비정한 엄마 '장파열' 호소 아들 팽개쳐 광주 아동보호기관은 신고 받고도 방치

초등학교 1학년이 어머니의 동거남에게 심하게 얻어맞아 숨졌다. 이웃민들과 유치원 교사 등은 수개월 전부터 동거남의 상습적인 아동폭력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는데도, 이 어린이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은 27일 동거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무모(26·광주시 북구 유동)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방조한 어머니 조모(27)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10일 전부터 동거녀의 아들 윤모(6)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집에서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어머니 조씨는 아들이 장파열과 복막염으로 "배가 아프다"며 호소했으나 이를 방치,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구타한 사실이 없으며 혼자 침대에서 뛰며 놀다 모서리에 부딪쳐 다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와 조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지난 2006년 봄부터 동거하면서 윤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윤모에게 얼굴에 주먹질을 했으며 지난 달 2일에는 누워있는 윤군의 배를 밟는 등 상습폭행해 왔다. 이웃주민과 유치원 교사들은 폭행 의혹을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난 2006년 8월, 올해 2월 등 두 차례나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 9명, 동급생을 3일간 감금 폭행

광주 북부경찰은 27일 같은 학교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광주 W중 3년 조모(14)군 등 9명을 폭력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A(14)군을 불러내 "이유 없이 피해다닌다"며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3일 동안 자신들의 집에 감금한 혐의다. 하지만 조군 등은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중형기자 golee@

어머니가 돈 안 빌려줘 집에 불지른 30대 영장

장흥경찰은 27일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36)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전 8시께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최모(64)씨에게 "사글세 방이라도 구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한옥 등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하지만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윤군이) 놀이터에서 놀다 다쳤다"는 우씨 등의 주장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 박모(36) 상담원은 "지난 달 23일 우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놓고 회의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씨와 살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고발하지 않았다"며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라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난해 접수된 광주지역 아동학대 상담은 모두 279건으로 이중 2건만이 고발조치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음란 동영상 게시자는 중학생

포털 측도 '방조' 조사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에 음란 동영상물을 올린 유포자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야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A(12)군과 B(13)군 등 중학생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키로 하고 C(2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은 18일 오후 3시40분께 경북 포항의 사촌집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5

분31초 짜리 음란 동영상을 '야후' 블로그에 8시간 동안 올려놓은 혐의다. 중학교 2학년생 B군과 용접공 C씨도 마찬가지로 음란 동영상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음란물이 올려진 포털사이트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근무 상황 등을 조사해 음란물 게시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 다. /연합뉴스



남구의원 당선무효형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7일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남구의회 신모(50)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장 훔친 집에 다시 갔다 '달미'

○-자신이 세들어 살았던 집에 들어가 통장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주인의 신고로 달미. ○-27일 안도경찰에 따르면 정모(36)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3시께 안도군 노화읍 이포리 고모(81) 할머니의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통장을 훔쳐 예금액 8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내 달아났다는 것. ○-정씨는 통장 절도 후 6일 동안 지켜봐도 할머니가 도난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자 현금을 인출해 달아나 유혹비로 탐진했는데, 경찰에서 '죄책감에 남은 돈이라도 되돌려주기 위해 다시 갔다'고 진술. /원도=정문조기자 ejchung@

9급 공무원시험 [일반행정] 합격책임제 모집. 정원 30명! (제1남성반:10명) (제2여성반:10명) (남여동합반 10명) 개강 4월 9일 입학 7월 1일. 수강생 의무사항, 수험생 특권. 메가고시학원. 전화 226-5050.